

5 단계

태도의 변화

엘림 기독교 서비스 자료

STAGE 5: 동역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장애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부르셨을 것이다. 나는 사역이 단지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선한 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STAGE 4: 우정

나는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내게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내 삶에 더 유익임을 안다. 또 내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그도 내게 축복이 된다는 것도 안다. 사실, 나는 요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와 지역 사회에 보내주신다. 우리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서로에게 주는 유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

STAGE 3: 돌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존귀하다. 나는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그러면 나는 그런 노력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 교육을 시작하거나 그들의 부모를 위해 관리 위탁 간호를 시작해야 한다.

STAGE 2: 동정

나는 장애인들을 보면 불쌍하다. 정말 안쓰럽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내 자녀들이 장애인인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불편함 때문에 분명히 나같이 그들에게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나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STAGE 1: 무지

결함과 장애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거나 고칠 수 없다는 신호이다. 사실, 그건 죄의 결과이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너무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나는 장애인들을 알아가거나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인식 구축

접근방법 제공

통합

참여



VISIT THE WHEATON CENTER FOR FAITH AND DISABILITY FOR MORE INFORMATION AND RESOURCES.



"5 STAGES: CHANGING ATTITUDES" IS COPYRIGHT © 2009, DAN VANDER PLAATS, WITH THANKS TO ELIM CHRISTIAN SERVICES, DISABILITY CONCERNS CRC AND RCA, ENGAGING DISABILITY, JONI AND FRIENDS, AND WHEATON COLLEGE